
 문화체육관광부		<h1>보도자료</h1>			
보도일시	7. 10.(월) 조건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인터넷 7.9.(일) 낮 12시 이후 보도			총 8쪽(붙임 6쪽 포함)	
배포일시	2017. 7. 9.(일)	담당부서	관광정책실 관광정책과		
담당과장	강정원(044-203-2811)	담당자	사무관 최혜지(044-203-2816)		

국민의 52.1%, 올여름 휴가여행 떠난다

- 7월 말~8월 초, 여름휴가 국내 여행 집중 예상, 여행 기간 평균 2.9일 -

올해 우리나라 국민의 52.1%가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으며, 이 가운데 83.6%는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, 1인당 국내 여행 휴가비로는 작년보다 2천 원 늘어난 평균 25만 6천 원을 지출할 것으로 조사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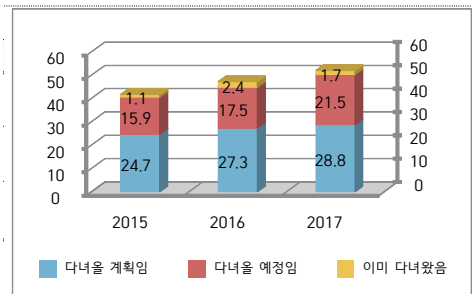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도종환, 이하 문체부)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(원장 김정만)과 함께 '국민들의 여름휴가 여행 계획'을 파악하는 '2017년 하계휴가 실태조사'를 실시하였다. 이번 조사*는 국민 1,241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 형태로 6월 15일(목)부터 26일(월)까지 12일 동안 진행됐다.

※ 조사 기간: '17. 6. 15~26. / 조사 기관: ㈜한국리서치 / 조사 표본 오차: 95% / 신뢰 수준 ±2.78%

국민 절반 이상 여름휴가 떠나, 지난해 비해 4.9%포인트 증가

올여름 휴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응답비율 52.1%는 ▲ 구체적인 여행 계획이 있는 응답자(28.8%), ▲ 휴가 여행을 다녀올 가능성이 높은 응답자(21.5%), ▲ 이미 휴가를 다녀온 응답자(1.7%) 비율의 합이다. 이는 전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4.9%포인트(p) 증가한 수치이다.

<표 1> 2017년 여름휴가 계획 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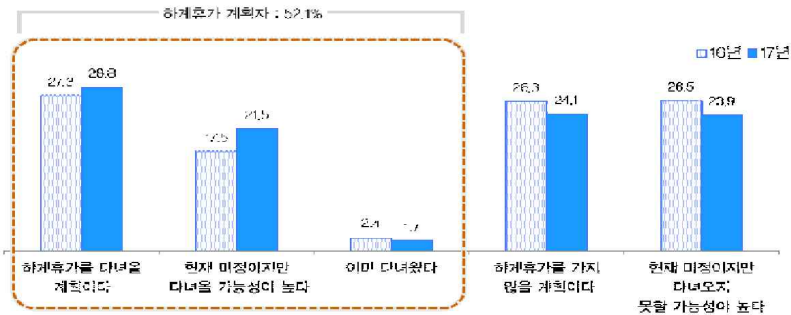
1. 하계휴가 예상 참여율

1) 하계휴가 계획여부

- 올해 하계휴가 여행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는 52.1%로, 국민 10명 중 5명은 하계휴가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세부적으로, 올해 하계휴가 여행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하계휴가를 다녀올 계획이 있다(28.8%), 현재 미정이지만 다녀올 가능성이 높다(21.5%), 이미 다녀왔다(1.7%)로 조사됨
- 2016년 조사와 비교해보면, 하계휴가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4.9%p 증가(47.2% → 52.1%)한 것으로 나타남

[그림 1] 하계휴가 여행 여부

[Base: 전체응답자, 단위: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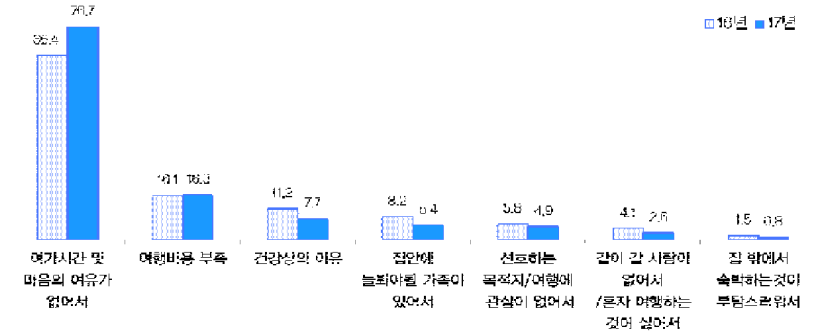


2) 하계휴가 제약요인 조사결과

- 하계휴가 여행 계획이 없는 이유로 업무, 수업, 가사일 등으로 인한 ‘여가 시간 및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(76.7%)’ 를 가장 높게 꼽음. 그 다음으로 ‘여행비용 부족(16.3%)’, ‘건강상의 이유(7.7%)’ 순
- 2016년 조사에서 1순위였던 ‘여가 시간 및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’ 는 10.3%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- 반면, 2016년 조사에서 3순위로 꼽혔던 ‘건강상의 이유’ 는 3.5%p 감소(11.2% → 7.7%)

[그림 2] 하계휴가 여행을 가지 않는 이유

[Base: 하계휴가 여행 비계획자, 단위:%]



* 7순위까지만 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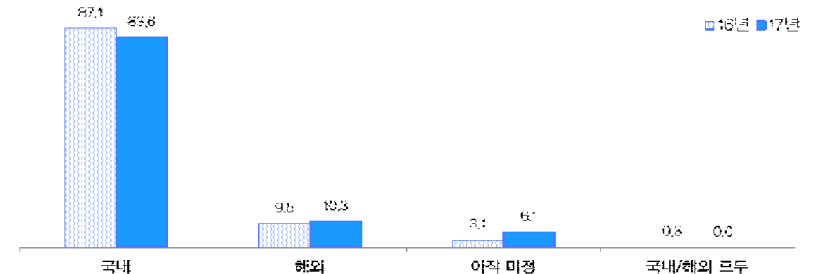
2. 국내 하계휴가 계획 세부결과

1) 하계휴가 여행 목적지(국내/해외)

- 응답자의 83.6%는 하계휴가 목적지로 ‘국내여행’ 을 꼽아, 국민 10명 중 8명은 국내로 하계휴가 여행을 다녀올 계획인 것으로 전망됨. 이어서, ‘해외여행(10.3%)’, ‘미정(6.1%)’ 순으로 조사됨
- 국내여행은 ‘16년 대비 감소(3.5%p : 87.1% → 83.6%)한 반면, 해외여행은 증가(0.8%p : 9.5% → 10.3%)한 것으로 나타남

[그림 3] 하계휴가 여행 목적지(국내/해외)

[Base: 하계휴가 여행 계획자, 단위: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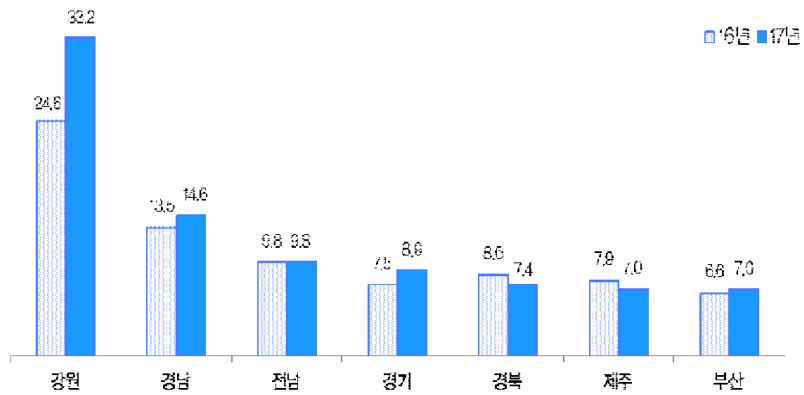


2) 하계휴가 여행 국내목적지

- 하계휴가 국내 목적지로는 ‘강원도(33.2%)’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, 그 다음으로는 ‘경상남도(14.6%)’, ‘전라남도(9.8%)’, ‘경기도(8.9%)’, ‘경상북도(7.4%)’ 등의 순으로 조사됨
- 2016년 조사에서 1순위로 꼽혔던 ‘강원도(24.6% → 33.2%)’는 응답비율이 8.6%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, ‘경상북도(8.6% → 7.4%)’의 응답비율은 1.2%p 감소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

[그림 4] 하계휴가 여행 국내목적지

[Base: 하계휴가 국내여행 계획자, 단위:%]



* 7순위까지만 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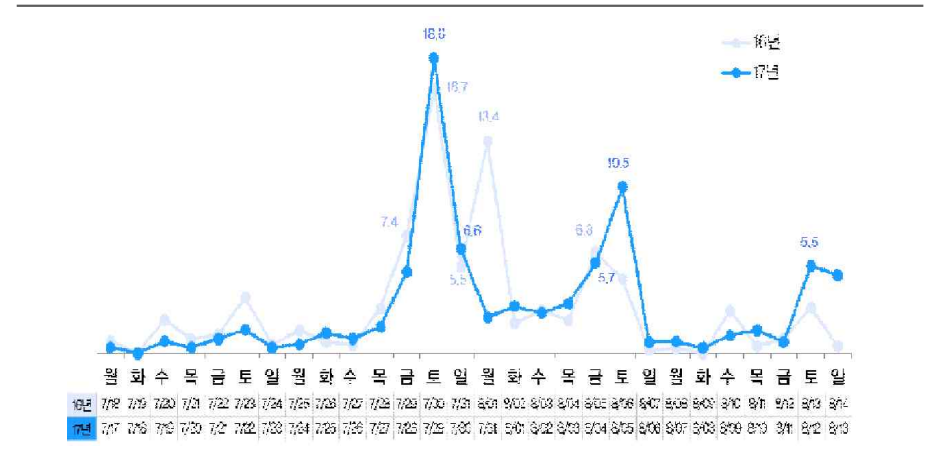
3) 하계휴가 여행 출발시점

- ‘7월 중순부터 8월 중순¹⁾ 사이에 하계휴가 여행을 갈 예정이다’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81.6%로 국민 10명 중 8명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하계휴가 여행을 다녀올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
- 일자별로 살펴보면, 7월 29일(토)이 18.6%로 가장 높고, 이어서, 8월 5일(토) 10.5%, 7월 30일(일) 6.6%, 8월 4일(금) 5.7%로 순

1) 2016년은 7월 18일부터 8월 14일 까지 이고, 2017년은 7월 17일부터 8월 13일 까지

[그림 5] 하계휴가 여행 출발시점

[Base: 하계휴가 국내여행 계획자, 단위: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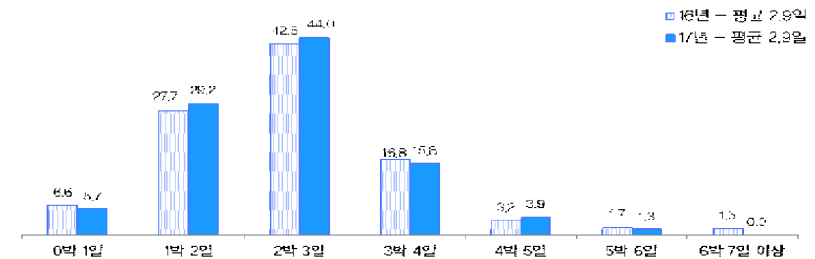


4) 하계휴가 여행 기간

- 응답자는 예상되는 하계휴가 여행 기간으로 ‘2박 3일(44.0%)’을 가장 높게 꼽음. 이어서, ‘1박 2일(29.2%)’, ‘3박 4일(15.8%)’ 등의 순
- 한편, 평균 여행일수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인 2.9일로 나타남
- 2016년 조사와 비교해보면, ‘2박 3일’은 증가(1.5%p : 42.5% → 44.0%)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, ‘3박 4일’은 감소(1.0%p : 16.8% → 15.8%)한 것으로 조사됨

[그림 6] 하계휴가 여행 기간

[Base: 하계휴가 국내여행 계획자, 단위: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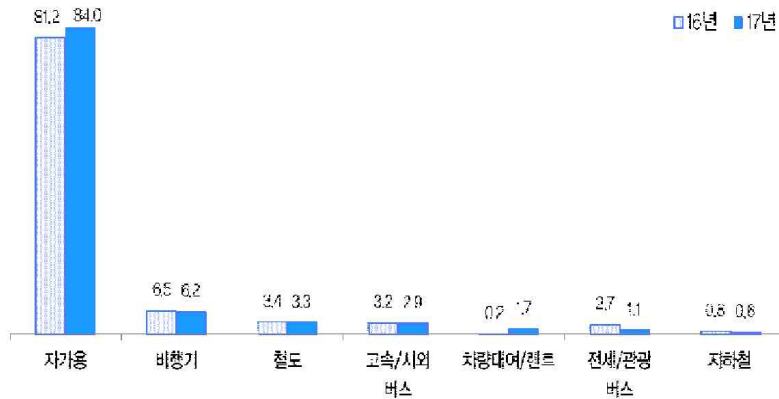


5) 하계휴가 여행 시 이용 교통수단

- 응답자는 예상되는 교통수단으로 ‘자가용(84.0%)’ 을 가장 많이 꼽음. 그 다음으로는 ‘비행기(6.2%)’, ‘철도(3.3%)’, ‘고속/시외 버스(2.9%)’ 등의 순임
- 2016년 조사에서 1순위로 꼽혔던 ‘자가용’ 응답비율은 2.8%p 증가(81.2% → 84.0%)한 것으로 나타남. 반면, 2순위로 꼽혔던 ‘비행기’ 는 올해 조사에서 0.3%p 감소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(6.5% → 6.2%)

[그림 7] 하계휴가 여행 시 이용 교통수단

[Base: 하계휴가 국내여행 계획자, 단위: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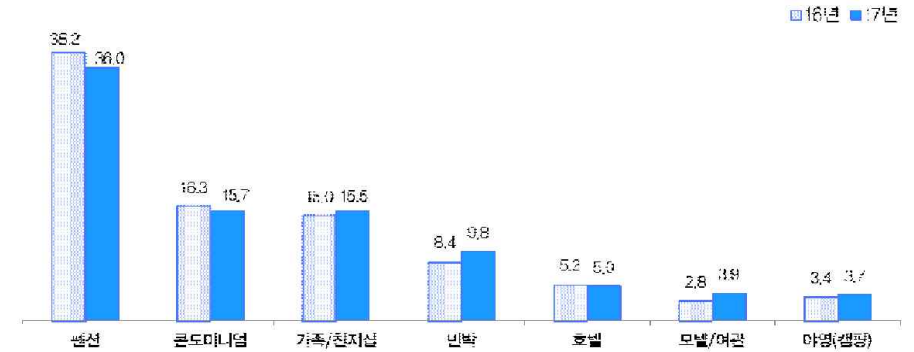
* 7순위까지만 표시

6) 하계휴가 여행 시 이용 숙박시설

- 예상되는 이용 숙박시설을 질문한 결과, ‘펜션(36.0%)’ 이 1순위로 가장 높게 나타남. 그밖에 ‘콘도미니엄(15.7%)’, ‘가족/친지집(15.5%)’ 등의 순으로 조사됨
- 1순위인 ‘펜션’ 은 작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(2.2%p : 38.2% → 36.0%)

[그림 8] 하계휴가 여행 시 이용 숙박시설

[Base: 하계휴가 국내여행 계획자, 단위:%]



* 상위 7순위까지만 표시

7) 하계휴가 여행 예상 지출액

- 하계휴가 국내여행 계획자의 평균 지출액은 25.6만원으로, 작년 대비 0.2만원 증가함
- 한편, 지출구조를 살펴보면, ‘20-30만원 미만’ 이 30.5%로 가장 높고, 다음으로 ‘10-20만원(29.0%)’, ‘30-50만원(30.3%)’, ‘50-100만원(8.6%)’ 등의 순으로 조사됨
- 2016년 조사와 비교하면 ‘30-50만원 미만’ 은 12.3%p 증가(18.0% → 30.3%)
- 반면, ‘20-30만원 미만’ 은 올해 조사에서 3.0%p 감소(33.5% → 30.5%)

[그림 9] 하계휴가 여행 예상 지출액

[Base: 하계휴가 국내여행 계획자, 단위:%]

